

세계 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종료

1만여명 태권도원 찾아

난민·개도국 선수

참가 기회 부여하는 등

협업 프로그램 진행

올림픽의 가치 확산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과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군수 황인홍),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양진방)가 공동 주관한 '무주 태권도원 2025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이하 '그랑프리 챌린지')'가 지난달 28일부터 31일 태권도원 T1 경기장에서 4일간의 열전을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그랑프리 챌린지'는 2022년 태권도진흥재단과 세계태권도연맹이 신선했던 국제 대회로 올해부터는 출전 선수 자격을 없애는 등 대회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 그동안 그랑프리 챌린지는 신진 선수 발굴과 국제대회 출전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체급별 올림픽 랭킹 71위 이후의 선수들이 출전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제한이 사라지며 2024년 파리올림픽 금메달 수상자인 박태준(한국), 피리스 카투시(튀니지), 김유진(울산광역시체육회) 선수 등 9명의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대거 출전했다. 특히 출전 선수 중에는 파리올림픽 금메달 수상자가 4명 있었으나 김유진 선수만이 이번 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고, 다른 선수들은 8강 등에서 탈락하는 이변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올림픽 가치 확산 및 공적개발 원조 등을 위해 세계태권도연맹과 함께 난민 태권도 선수를 초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열린 '2025 세계 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에 참가한 난민선수들이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태권도진흥재단 제공)

청했고, 전북특별자치도 올림픽추진단 과도 협업해 개발도상국 선수단을 초청 '그랑프리 챌린지'에 참가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난민 선수로 태권도원을 찾은 가이 게를린 투룬조는 "이번 대회 참가에 앞서 태권도원에 초청받아 한국의 여러 지도자들로부터 높은 수준의 지도를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더 큰 목표를 설정하는데 자신감을 키운 시간이 되었다"라며 난민 선수단을 태권도원에 초청해 준 태권도진흥재단과 세계태권도연맹에 감사함을 나타내기도 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그랑프리 챌린지에 참가한 1,000여 명의 대회 관계자 및 선수단에게 지역 내 숙박 시설 이

용을 권장했고, 매일 경기를 마친 저녁 시간대에 태권도원에서 무주읍과 실천면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영하며 무주 지역 관광을 유도했다. 또한, 나흘간의 대회 기간 동안 태권도원을 찾은 방문객을 위해 그랑프리 챌린지 관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하며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모두 제공한 대회로 기록되었다.

김중현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대회 기간 동안 태권도원을 찾은 방문객만 1만여 명에 달하며 그랑프리 챌린지의 성공 개최는 물론 지역을 알리는 데에도 기여했다"라며 "이제는 G6 등급의 메이저 국제 대회인 '2026 그랑프리 시리즈' 준비를 위해 '2025 그랑프리 챌린지'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 밑거름으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K리그 테크니컬 디렉터

제도 정착 세미나 진행

프로축구 K리그를 총괄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충남 천안 오엔시티호텔에서 'K리그 테크니컬 디렉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테크니컬 디렉터는 구단의 기술 발전 프로그램을 기획 및 관리하는 직책으로, 프로 선수단 구성, 유소년 시스템 관리 등 선수단 관련 총괄 업무를 책임진다.

이번 세미나는 테크니컬 디렉터 제도의 초기 정착과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연맹과 구단 관계자 약 60명이 참가했다.

/뉴시스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가 오는 6~21일까지 도내 22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학교체육 최대 축제 '광파르'

전북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6~21일 개최

도내 22개 경기장서... 16개 종목, 404개팀 참가

축구·농구 '시군 분리 토너먼트' 방식 시범운영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가 시흥 앞으로 다가왔다.

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스포츠클럽대회가 오는 6~21일까지 전주근영여고를 비롯해 도내 22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학생들의 체력 향상을 돕고,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개최되는 전북 최대 규모의 학교체육 행사다.

이번 대회에는 전북 지역 초·중·고교 404개 팀, 5,070명의 학교스포츠클럽 선수가 참가해 축구, 농구, 배드민턴, 탁구 등 16개 종목에서 열린 경합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스포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새

로운 운영 방식을 도입했다.

축구와 농구 종목에 시·군 분리 토너먼트 방식을 시범 적용해 군 지역 학교 학생들에게도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기로 한 것이다.

이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잡힌 스포츠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전북교육청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방식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2026년부터 시·군 분리 방식 적용 종목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대회는 모든 학생이 소외되지 않고 스포츠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스포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민체전 승전 다짐

고창군, 선수단 결단식

37개 종목 793명 출전

고창군이 지난 2일 저녁 실내체육관에서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참가 선수단결단식'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행사는 심덕섭 고창군수, 조민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윤준병 국회의원, 오철환 고창군체육회장과 선수 및 임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전 보고를 시작으로 격려사, 선수대표 선서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대회는 오는 12~14일 고창군 일원에서 '세계유산도시 고창에서 뭉쳐라 전북의 힘'이라는 슬로건으로 3일간 펼쳐지며, 고창군체육회는 37개 종목에 선수 582명, 감



고창군이 지난 2일 저녁 실내체육관에서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참가 선수단결단식'을 진행했다.

독·코치 등 211명 총 793명이 출전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대회를 위해 무덤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땀 흘려 준비하고 있는 고창군체육회

와 선수단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참가선수단 모두가 5만 고창군민의 대표라는 자긍심을 갖고 경기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산 개최 전국장애인체전 출전 전북선수단 강화훈련장 순회 격려

전북장애인체육회 임직원들, 애로사항 청취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가 10월 31일 부산광역시에서 개막하는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선수단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3일 밝혔다.

도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전북 장애인 선수단은 지난 8월 대표선수단 구성을 마치고 최상의 경기력 발휘를 위한 종목별 집중강화훈련에 돌입했다.

전북 선수단은 휠체어테니스, 휠체어펜싱, 좌식배구, 보치아, 론볼, 육상, 유도, 사이클, 양궁, 태권도, 사격, 승마, 댄스스포츠, 카누, 조정, 골프 등 26개 종목에 506명(선수 312명, 경기임원 및 관계자 193명)으로 구성됐다.

선수단은 종목별 훈련장에서 지속되는 국한의 폭염 속에서도 선수들은 필



승의 다짐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다.

훈련을 이끄는 도 장애인체육 종목별 경기단체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 자체강화훈련 및 전지훈련, 현지적응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종목별 맞춤 훈련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극심한 무더위로 인한 열염질환 및 부상 방지 등 선수들의 건강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도장애인체육회 역시 종목별 강화훈련에 필요한 장비·용품, 전지훈련 지원 등 대표선수들의 사기진작 및 훈련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종목별 훈련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격려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대회 총감독인 도장애인체육회 조형철 사무처장은 "극한폭염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강화훈련에 임하고 있는 선수, 지도자, 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흘리신 노력의 땀방울이 결코 헛되지 않고 좋은 결실로 물 것으로 생각한다"며 "선수들의 부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자결길

너머의 예술 - 이름 프로젝트

시, 음악속을 걷다

2025년 9월 4일(목) 저녁 7시
시인 정호승 - 시, 삶을 노래하다
시인:정호승 진행:MC은유 연주:볼빛남매

2025년 9월 11일(목) 저녁 7시
클래식 마니아 김중삼 - 시, 죽음을 노래하다
시인:김중삼 해설:진행:김정배 연주:원바드

2025년 9월 18일(목) 저녁 7시
시인 강윤미 - 시, 섬을 노래하다
시인:강윤미 진행:MC은유 연주:오은하

2025년 9월 25일(목) 저녁 7시
별을 노래하는 시인 윤동주 - 시, 별을 노래하다
시인:윤동주 해설:진행:김정배 연주:인문밴드레이

특별 초청 정호승 시인

김중삼 시인

강윤미 시인

윤동주 시인

2025. 9. 4 ~ 9. 25[목] 7:00pm

문화공간 이름

주최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 이윤형

주 원 한국문화재단, 후원 한국문화재단, 후원 한국문화재단

티켓 전석 20,000원

예매 방법 "이름" 앱에서 구매 가능

문의 063-223-5323 카카오톡:문화공간이름

*본 공연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추진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부채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연입니다.